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최 가 연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송 연 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성인 남녀가 지각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도시 및 J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465명에게 아동기 외상, 관계중독 및 거절민감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2.0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은 거절민감성을 통해 관계중독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중독적인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개입방법을 제시하였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 본 연구는 최가연(2019)의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연주, (58245)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93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061)330-3539, E-mail: songyj@dsu.ac.kr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란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독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Martin, 1994). 일반적으로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고, 중독이 된 대상에 대한 강박관념과 집착에 빠지며, 중독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특징을 내포한다(Bireda, 2005; Schaeffer, 2010). 관계에 중독된다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종종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일지라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집착하게 되고 상대나 관계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즉, 관계중독이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자체가 중독물의 핵심으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잘못이란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Martin, 1994; Whiteman & Petersen, 2004). Whiteman과 Petersen(2004)은 관계중독을 사랑중독, 사람중독, 성중독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관계중독을 사랑중독이라 명명한 Peabody(2010)은 이를 사람에 대한 중독, 관계에 대한 중독, 사랑에 대한 중독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관계중독자들이 이토록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자신에 대한 행복감과 가치감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나 상대를 통해 자기를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정서적 공허감이나 심리적 결핍을 현재 관계를 맺고 있

는 상대에게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Bireda, 2005; Schaeffer, 2010).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어린 시절 경험한 고통을 재경험하게 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 수 있다(Hart, 1990). 이러한 행동양식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고통스럽고 집착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양식을 형성하여 상대방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문제해결 및 상호작용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되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Bradshaw, 2005; Whiteman & Petersen, 2004).

관계중독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지연, 심혜원, 2016; 박한나, 가요한, 2017; 안명란, 홍혜영, 2016; 이계선, 정남운, 2013; 이지원, 이기학, 2014; 한진주, 2007). 이 중에서도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성인기에 관계중독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가령, 박준호, 이민규, 2018; 손승희, 2017; 이윤연, 장현아, 2017). 부모로부터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초기 모델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Finzi, Har-Even, & Weizman, 2003; Raja, 2015). 애정이 부족하고 사랑이 박탈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 상대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떠나갈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데, 이는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집착하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한진주,

2007). 즉, 양육자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해가 되는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관계중독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특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높은 친밀감이 필요한 이성관계에서 병리적 관계문제인 관계중독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공감적 이해 능력이나 조망수용능력이 떨어져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과잉반응 또는 몰입을 하게 되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김가령 외, 2018). 아동기 외상은 개인의 건강한 자기구조의 발달을 저해하며 적응능력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가 낮고 불안정한 도식을 형성하여 이성관계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관계중독을 경험할 수 있다(손승희, 2017). 어릴 적 경험한 학대는 언젠간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유기도식을 형성하며, 중요 대상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연인 간에 폭력이 발생해도 자신이 가해자나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착각하거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을 자책하면서도 자신이 노력하고 변화하면 상대방의 사랑을 다시 얻을 것이라는 회

망으로 폭력적인 관계마저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이윤연, 장현아, 2017).

이처럼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기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병리적인 이성관계 모습인 관계중독적 특성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이 과정이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정의하고,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의 중요한 사회, 심리적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거절민감성을 들 수 있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며 불확실한 거절 단서에도 쉽게 거절로 예측하고 과잉 반응하는 성향을 나타내기 쉬운데, 이를 거절민감성이라고 한다(Downey & Feldman, 1994).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중요한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며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을 자동적으로 위험상황으로 인식하고 두려움이나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높은 거절민감성은 상대방의 거절에 부적절하게 반응하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아동기 외상은 높은 거절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무가치감, 무관심, 결절에 대한 비난, 사랑받지 않는다는 느낌 등의 거부적인 태도와 언어화된 방식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거절당하는 것에 민감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하수홍, 장문선, 2013).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거나 학대의심사례로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 중에서도 아동학대를 경험할수록 거절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자들은 학대나 방임의 유형에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거절민감성이 형성되는 인지·정서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강하은, 조영아; 2017). 양육자가 아동의 일탈 행위를 방관하며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신체적인 학대 경험에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쉽게 거절을 지각하고 과잉 반응하는 거절민감성의 특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은실, 이주영, 2016). 즉, 어린 시절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불안이 높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거절민감성과 관계중독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성관계에서 상대의 반응을 쉽게 왜곡하여 거절로 지각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성정아, 홍혜영, 2014),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동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

도 관계를 유지하게 위해 상대의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이수정, 2017; Purdie & Downey, 2000).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는 집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Martin, 1994), 이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임에도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관계중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갈등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고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유지하는 관계중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인숙, 2018).

종합해보면, 아동기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외상 경험은 거절민감성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 해가 뭍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집착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중독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은 경계선 성격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내적 자기상과 타인과의 관계, 감정조절이 매우 불안정하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역시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과 같은 외상의 경험이 흔하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데(하수홍, 장문선, 2013), 이들은 관계 내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선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애정을 분노로 바꾸어 표출하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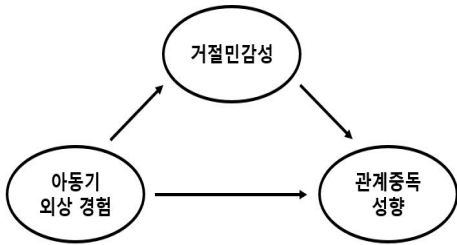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기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권석만, 2003). 반면, 관계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이들은 중독적 특성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원칙이나 확신, 우정, 자존감 등을 버린 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관계에 몰입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관계 일지라도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Sussman, 2010). 즉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계중독 모두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을 주요 원인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나타내는 행동 양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관계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및 거절민감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관계중독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NS 중독의 경우, 명확한 개념이나 진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Kuss & Griffiths, 2017),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하게 몰두하고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며 일상에 지장이 있다는 개념으로 ‘SNS 중독 경향성’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병리적인 중독 상태가 아닌

관계에 집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는 ‘관계중독성향’이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관계중독 성향을 보이는 이들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중독적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거절민감성이 부분매개 하는 그림 1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반해 아동기 외상이 거절민감성을 통해서만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완전매개 하는 그림 2를 경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G도시 및 J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465명이다. 본 연구는 기관 내 윤리위원회(IRB)에 승인을 받아 수행하

였으며(승인번호: 1040708-201804-SB-014), 자료는 2018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D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응답하면서 개인의 불유쾌한 경험이 상기되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거나 정서적 피해가 초래될 경우 설문문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고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설문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동의를 얻어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성 211명(45.4%), 여성 252명(54.2%), 무응답 2명(4%)이었고, 연령대는 10대(18~19세) 42명(9.0%), 20대 287명(61.7%), 30대 49명(10.5%), 40대 60명(12.9%), 50대 20명(4.3%), 무응답 7명(1.5%)이었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 34명(9.0%), 전문대 재학 26명(5.6%), 4년제 재학 230명(49.5%), 대졸 118명(25.4%), 석사 재학 이상 54명(11.6%), 무응답이 3명(6%)이었으며, 혼인여부는 미혼이 350명(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TQ-SF)을 사용하였다. 아동기 외상 척도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신체적·정서적 방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아동기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따라 1점 '전혀 없음'에서 4점 '자주 있음'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관계중독성향 척도. 관계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Whiteman과 Peterson(1998)이 개발하고 김인화(2004)가 번안한 관계중독 질문지(Relational Addiction Questionnaire: R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특징이 있는 사랑중독, 성 관계를 사랑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성중독,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목적을 위해 현재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중독, 관계중독에 영향 받기 쉬운 요소를 갖고 있는 정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중독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따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기 되어 있다. 박연주(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거절민감성 척도.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

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번안한 거절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vity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였다. 거절민감성 척도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까봐 불안한지에 대한 ‘거절불안’과 수용될 것이라 기대하는지에 대한 ‘수용기대’의 두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절민감성 점수는 각 상황에 대한 거절불안과 수용기대(역채점)의 곱 점수를 합하여 전체 문항 수 18로 나눈 값으로, 총점의 범위는 1~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거절민감성 수준이 심한 정도에 따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복동(2000)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2.0을 이용하여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를 거절민감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먼저 확인한 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Anderson & Gerbing, 1988),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의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χ^2 , TLI, CF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RMSEA는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에서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값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의 양호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였다.

결 과

주요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의 기술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 대부분의 하위변인들에서 상관이 유의하였다. 관계중독성향의 하위변인들 중에서 사랑중독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방임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성중독은 신체적 방임과만 상관이 유의하였다. 사람중독은 아동기 외상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 값은 -.06 ~ 1.65, 첨도 값은 -.05 ~ 2.27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 값 2를 초과하면, 첨도는 절대 값 7을 넘지 않으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N=465

	1	2	3	4	5	6	7	8	9	10
아동기외상										
1. 정서적학대	-									
2. 정서적방임	.53***	-								
3. 신체적학대	.39***	.25***	-							
4. 신체적방임	.30***	.30***	.14***	-						
거절민감성										
5. 거부불안	.21***	.24***	.13**	.20***	-					
6. 수용기대	.23***	.37***	.16**	.26***	.49***	-				
관계중독성향										
7. 사랑중독	.29***	.25***	.08	.16***	.50***	.28***	-			
8. 성중독	.07	.05	.03	.10*	.29***	.06	.57***	-		
9. 사람중독	.05	-.04	.06	.05	.11*	-.13**	.46***	.56***	-	
10. 영향정도	.30***	.28***	.12**	.19***	.49***	.34***	.72***	.49***	.33***	-
M	5.22	8.00	6.02	5.21	44.70	49.06	13.65	12.72	19.60	13.06
SD	1.78	3.68	1.42	1.49	15.47	13.69	5.03	4.47	4.83	5.14
왜도	1.65	1.28	1.61	1.41	.18	.24	.36	.37	-.06	.46
첨도	2.23	1.15	2.27	1.67	-.53	.23	-.34	-.24	-.05	-.27

*** $p < .001$, ** $p < .01$, * $p < .05$.

간주하기에(West, Finch, Curran, 1995), 본 연구의 측정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31, N=465)$ 은 128.016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CFI, TLI, RMSEA 등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검증 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측정모형 검증 과정에서 사람중독은 요인부하량이 낮고 사람중독과 성중독 간의 오차 간 상관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독과 성중독의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그림 3. 최종 모형 참조).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사람중독의 요인부하량이 다소 향상되었으며, CFI=938, TLI=.907, RMSEA=.080 (90% 신뢰구간=.064 - .096)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p < .001$ 수준에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C.R.
아동기외상	정서적학대	1.000		.758	
	정서적방임	1.808	.184	.694	9.819***
	신체적학대	.425	.061	.408	6.949***
	신체적방임	.513	.067	.458	7.662***
거절민감성	거부불안	1.000		.836	
	수용기대	.628	.071	.600	8.841***
	사랑중독	1.000		.921	
관계중독성향	성중독	.590	.046	.613	13.129***
	사람중독	.469	.051	.452	9.257***
	영향받기쉬운정도	.869	.052	.792	17.371***

*** $p < .001$.

서 모두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남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거절민감성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한 후 경쟁모형과의 χ^2 차이검증 및 CFI, TLI, RMSEA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거절민감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모두 포함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1, N=465)=128.016, p < .001, CFI=.938, TLI=.907, RMSEA=.080$ (90% 신뢰구간

= .064 - .096).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2, N=465)=131.870, p < .001, CFI=.936, TLI=.908, RMSEA=.080$ (90% 신뢰구간 = .064 - .09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2.854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 결과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CFI, TL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χ^2 차이검증
연구모형	128.016	31	.938	.907	.080(.064-.096)	$\Delta \chi^2(1)=2.854$
경쟁모형	130.870	32	.936	.908	.080(.064-.095)	

결과, 아동기 외상은 거절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0, p<.001$), 거절민감성 또한 관계중독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 p<.00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서도 아동기 외상에서 관계중독성향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beta=.121, p<.05$), 완전매개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거절민감성은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적합하다(Shrout & Bolger,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10,000번 시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이 영가설

표 4.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C.R.
아동기외상 → 거절민감성	5.934	1.067	.498	5.560***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성향	.374	.040	.657	9.269***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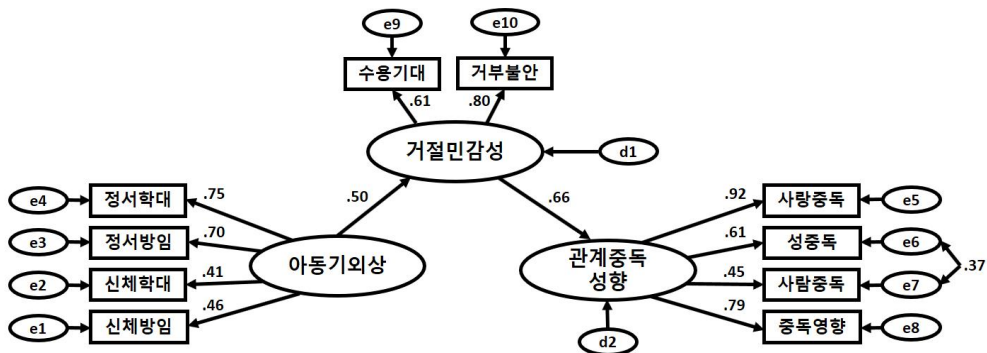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 $p<.001$,

표 5. 간접(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estimate (95%의 신뢰구간)
아동기 외상 →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성향	.478 (.284 ~ .722)***

*** $p<.01$.

의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강하은, 조영아, 2017; 변은실, 이주영, 2016; 배라영, 최지영, 2018; 하수홍, 장문선, 2013).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김가령 외, 2018; 김수민, 2016; 손승희, 2017; 오유미, 2016). 거절민감성과 관계중독성향 간 정적상관이 나타나(이수정, 2017; 이인숙, 2018)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거절민감성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민감성을 매개하여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린 시

절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관계중독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만, 외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거절민감성이 형성된 경우에만 관계중독성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계중독성향이 형성되는데 있어 아동기 외상 경험 자체보다 두 변인 간에서 작용하는 다른 변인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가령 외, 2018; 손승희, 2017)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기 외상이 거절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강하은, 조영아, 2017; 변은실, 이주영, 2016; 배라영, 최지영, 2018; 하수홍, 장문선, 2013)와 거절민감성이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수정, 2017; 이인숙, 2018)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중독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거절민감성을 다루어주어야 함을 제시한다. 양육환경에서 간헐적인 거절을 지속적으로 당한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집착적인 행동 전략을 사용하며, 상대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Levy, Ayduk, & Downey, 2001). 양육자로부터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대나 모욕감을 경험하여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고유나, 2016),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절민감성을 지닐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 인지적 판단과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데(Mischel & Shoda, 1995), 거절민감성이 형성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선불리 거절로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며 과잉 행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높은 거절민감성은 대인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애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이민선, 노안영, 2018),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계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이수정, 2017; 이인숙, 2018). 즉,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거절민감성이 형성되어 성인기에 이성교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관계중독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에 중독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 외상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인 불안을 다뤄줌으로써 거절민감성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내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관계중독성향을 보이는 성인을 위한 상담개입 방안에 대한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이들의 관계중독성향을 다루기 위해서는 거절민감성을 변화의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상담 전략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으로 거절민감성이 형성된 이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작은 단서도 쉽게 거절로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Downey & Feldman, 1994). 이러한 인지, 정서적 특징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불안이나 적개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강하은, 조영아, 2017; 선미진, 2019; 이수정, 2017; 이인숙, 2018). 이와 같은 부정적 정보처리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일상생활에까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Isen,

2008; Lyubomirsky, 2001). 따라서 아동기 주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관계중독성향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거절민감성 수준을 고려하여 상담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자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이 지닌 심리도식이 상황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후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유아진, 서영석, 2017). 이러한 거절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지적 탈융합, 수용을 활용한 수용전념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김두현, 손정락, 2016). 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자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수용전념치료가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주고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사실로 믿는 경향을 낮춰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Bach & Hayes, 2002)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높은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수용전념치료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거절민감성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Christman, 2012), 대인불안이 높다(김나영, 조유진, 2009). 이는 상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담자는 치료적 장면에서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담 장면에서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며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있는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반응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사고 과정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거절민감성을 가진 이들이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거절에 대한 불안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도움으로써 버림받지 않기 위해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 장면에서 정서조절이나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같은 효과적인 갈등대처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력해준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계중독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 유무와 심각성을 탐색하고, 양육환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현재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유사한 자극일지라도 각자가 받는 영향력과 후유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린 시절 외상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Ehlers & Clark, 2000). 즉, 관계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이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유용한 상담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장면에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신, 이른바 내면아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등 내담자가 그 당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했던 슬픔과 감정의 응어리를 쏟아내도록 돕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것이다. 위로받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충동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조아라, 오제은, 2014; Bradshaw, 2004; Nichols & Schwartz, 2002). 과거의 결핍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현재 중요한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는 모습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돌볼 수 있게 한다면 관계중독 치료의 효과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Bradshaw, 2004).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관계중독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연구 역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관계중독성향을 일으키는 사회, 심리적 예측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관계중독성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상담 장면에서 관계에 집착하는 병리적인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개입 방안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중독성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관계중독성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연령이나 학력, 혼인여부 등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령이나 학력, 혼인여부 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각 표본의 수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관계중독성향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 모형 검증과정에서 사람중독의 요인부하량이 낮고, 사람중독과 성중독의 오차간 상관성이 높아 사

람중독과 성중독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람중독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중독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몇 문항들(예: ‘마음 끌리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혹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결점들을 보완해준다.’)이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긍정적으로 대답함으로써 중독적인 성향을 측정하려는 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김지연, 심혜원, 2013)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하에서 관계중독을 재개념화하거나 사람중독의 의미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완하여 관계중독을 측정한다면 관계중독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것으로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횡단연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아동기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독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아동기 외상 경험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김가령 외, 2018) 및 내면화된 수치심(손승희, 2017)과 주관적 고통 감내력(김수민, 2016)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외상 경험으로 인해 성인기에 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보호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관계중독성향으로 인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하은, 조영아 (2017).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8(11), 618-627.
- 고유나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1), 105-132.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가령, 박준호, 이민규 (2018).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초기 성인기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51-1073.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지*, 16(3), 149-162.
- 김두현, 손정락 (2016). 수용진념치료(ACT)가 사회불안장애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사회불안, 거절민감성 및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35(1), 101-119.
- 김수민 (2016). 심리적 외상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지연, 심혜원 (2016).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3(2), 73-100.
- 박연주 (2008). 성인의 애착과 낮은 자존감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 논문.
- 박한나, 가요한 (2017). 불안정한 초기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투사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한국독교상담학회지*, 28(3), 61-83.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배라영, 최지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문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2(1), 29-52.
- 선미진 (2019).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2.
- 손소희 (2017).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안명란, 홍혜영 (2016).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8(1), 75-100.
- 오유미 (2016).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대인외상의 관계: 해리경험, 관계중독,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아진, 서영석 (2017).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정서적 단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5), 41-60.
- 이계선, 정남운 (2013). 성인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 자기대상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9, 31-57.
- 이민선, 노안영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75-1192.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2017).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거절민감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인숙 (2018). 거부민감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로 조절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정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조아라, 오재은 (2014). 미혼여성이 연애경험 중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79-503.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한진주 (2007).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중독의 패턴연구: 애니어그램과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애니어그램연구*, 4(2), 135-16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view and recommended

-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ch, P. & Hayes, S. C. (2002). The use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prevent the re-hospitalization of psychotic patien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5), 1129-1139.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에 출판)
- Bradshaw, J. (2005). 수치심의 치유[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김홍찬 역). 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원전은 2002에 출판)
- Bireda, M. R. (2005). 사랑중독증: 이제 나를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Love addiction: a Guide to Emotional Independence]. (신민섭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에 출판)
- Christman, J. A. (2012). *Examining the Interplay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Compassion, and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Tennessee, USA.
- Downey, G., Feldman, S.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01), 231-247.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inzi, R., Har-Even, D., & Weizman, A. (2003). Comparison of ego defenses amo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omprehensive Psychiatry*, 44(5), 388-395.
- Hart, A. D. (1990). *Healing life's bidden additions*. Anne Arbor: Servant Publications.
- Isen, A. M. (2008). Some ways in which positive affect influences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pp.548-573). New York: Guilford Press.
- Kuss, D., & Griffiths, M. (2017).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ddiction: Ten lessons learne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3), 311-327.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3), 239-249.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G. (1994).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Victor Books]. (임금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은 1990에 출판)
- Mischel, W & Shoda, Y. (1995). A cognitive-affective system theory of personality: Reconceptualizing situations, disposition, dynamics, and invariance in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2(2), 246-268.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2).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김영애, 김정택, 송성자, 심혜숙, 정문자,

- 제석봉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에 출판)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Schaeffer, B. (2010). 사랑중독[*Is it love or is it addiction*] (이우경 역). 서울: 이너북스. (원전은 2009에 출판)
- Raja, S. (2015). 트라우마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극복하기[*Overcoming Trauma and PTSD/New Harbinger Publications*]. (김은심, 안황란, 이은정, 오희옥 역). 서울: 눈. (원전은 2012에 출판)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Peabody, S. (2010). 사랑중독: 관계에 대한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나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Addiction to love: overcoming obsession and dependency in relationship]. (류가미 역). 서울: 북북서. (원전은 2005에 출판)
- Sussman, S. (2010). Love addiction: definition, etiology, treatment.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17(1), 31-4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Sage.
- Whiteman, T. & Petersen, R. (200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Victim of love?: How you can break the cycle of bad relationships*]. (김인화 역). 서울: 사랑플러스. (원전은 1998에 출판)
- 원고접수일: 2019년 3월 9일
 논문심사일: 2019년 4월 2일
 게재결정일: 2019년 10월 1일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Ga-Yeon Choi

Yeon-Joo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the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To this end, 465 adults older than age 18 living in G city and J area were administered the childhood trauma, Relationship Addic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scal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for correlational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for the mediating effect validation was performed using AMOS 22.0. As a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Also,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showed full mediating effect. This suggests that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may lead to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rough this study, a counseling intervention method valuable to clients with addictive relationship problems is presented.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Relationship Addiction